

대웅, 英 아박타와 줄기세포면역치료제 JV설립

(조인트벤처)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위한 연구 아피머 단백질, 조직침투에 이점 줄기세포 플랫폼, 대량생산 가능 비항체 단백질 치료패러다임 기대



대웅제약이 영국계 바이오텍 기업과 협력해 줄기세포 플랫폼을 통한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31일 단백질 치료제 플랫폼 개발회사인 아박타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세포치료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인트벤처의 대표이사직은 대웅제약의 전승호 사장이 맡는다.

이 회사는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기능강화 줄기세포 연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중간엽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그리고 아박타는 특정 타깃의 특이적 아피머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조인트벤처에 각각 부여할 계획이다.

아박타가 보유하고 있는 아피머 기술은 'Stefin A'라는 체내 자연 발생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 치료제

플랫폼이다. 아피머 단백질은 항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항체유사단백질로, 기존 항체의 약 10분의 1 크기로 조직 침투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웅제약의 줄기세포 플랫폼(DW-MSC)은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역분화줄기세포)로부터 유래된 중간엽줄기세포로서, 배양 횟수에 제한이 있는 기존 성체 조직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와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치료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줄기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배양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갖춘 DW-MSC는 유전자 도입을 통해 줄기세포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승호 사장은 "양사 조인트벤처 설

립은 대웅제약이 오랜 기간동안 추진해 온 오픈콜라보레이션 사업의 획기적인 결과물"이라며 "아박타의 아피머 기술과 대웅제약의 줄기세포 기술을 융합해 기존의 항체 기반 요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비항체 단백질 형식의 치료 패러다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라스테어 스미스 아박타 사장은 "아피머 플랫폼과 대웅의 줄기세포 기술의 결합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대웅제약과의 조인트벤처 설립은 면역매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박타는 대웅제약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CU 수제맥주 /BGF리테일

CU "日 맥주 대신 국산으로"

지난해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편의점에서 일본맥주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올해부터 종량제가 시행되며 국산 수제맥주가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CU에 따르면,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본 맥주는 전년 대비 매출이 90% 이상 급락했다.

일본맥주의 2019년 하반기 월별 전년 대비 매출성장률을 보면, 7월 -52.2%로 절반 이상 떨어진 이후 8월 -88.5%, 9월 -92.2%, 10월 -91.7%, 11월 -93.1%, 12월 -93.8%로 최근 6개월 동안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일본맥주의 입지가 흔들리자 국산맥주가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국산맥주는 지난해 상반기 1~5% 한 자릿수 매출성장률에서 하반기 들어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그 중 기존 맥주들과의 차별화를 앞세운 수제맥주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CU에서 수제맥주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40%대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일본맥주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하반기부터 7월 159.6%, 8월 200.4%, 9월 207.1%, 10월 284.9%, 11월 290.1%, 12월 306.8%로 전년 대비 매출이 경중 뛰었다. 이에 따라 국산맥주에서 차지하는 수제맥주의 매출 비중도 2018년 1.9%에서 2019년 5.6%로 큰 폭으로 올랐다. 수제맥주의 이러한 인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 전환으로 인해 그동안 대량 생산이 힘들어 생산 단가가 높았던 수제맥주도 차츰 가격경쟁력을 갖추므로써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제넨바이오, 면역억제 신약 개발 나서

'GX-P1', 'BSF-110' 기술이전 계약 규모 최대 1910억+로열티 장기복용 가능한 신약 개발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오른쪽)가 7일 제넥신 경영진 대표와 차세대 면역억제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가 제넥신의 신약후보 물질인 'GX-P1'과 'BSF-110'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두 물질을 기반으로 제넨바이오는 이종장기이식 분야는 물론, 현재 동종이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면역억제제 신약개발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제넨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해당 물질을 이식 분야에 활용하는 데 있어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전용 실시권을 갖게 된다.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최대 1910억원으로, 제넨바이오는 이번 계약시 제넥신에 70억원을 지급하고, 향후 물질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료를 지급해 나갈 계획이

다. 상업화시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 또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제넨바이오와 제넥신은 지난 7월 MOU를 맺고 공동으로 GX-P1과 BSF-110 관련 비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제넨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해 부작용을 줄여 장기복용이 가능한 면역억제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바이오제네틱스, 대체육 진출 166조 시장 공략 준비 갖췄다

(10년내 예상규모)

'위드바이오팜'과 대체육 공동개발 육즙성분 추출로 확실한 차별화 콩뿌리육서 일정량량 추출 가능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대체육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모두 보유하게 됐다.

대체육 시장에 진출한 바이오제네틱스가 대체육 분야 선두업체인 위드바이오팜과 함께 '육즙성분(레그헤모글로빈)'을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의 출원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바이오제네틱스는 대체육 분야 최초 미래형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 국책 과제 선정 주관연구기업인 '위드바이오팜'과 대체육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특허는 지난달 '대체육 대량생산 및 상업화 핵심특허' 출원 완료에 이은 두 번째 특허 출원으로, 콩뿌리육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체육의 맛과 식감의 핵심인 육즙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기존 인공육 출시 제품은 단순히 식물성단백질 압축성형 제품인 반면, 자사가 개발한 제품은 핵심기술인 '육즙성분'이 가미돼 맛과 식감면에서 기존 제품과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바이오제네틱스는 '육즙성분'을 원재료인 콩뿌리육에서 일정량으로

영국 바클레이즈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육 시장은 향후 10년 내로 최대 1400억 달러(약 166조54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46억 달러보다 30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바이오제네틱스는 시제품 생산에 속도를 내고, 160조 글로벌 대체육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됐다. 특히 대체육은 이번에 개최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0'에도 소개될 만큼 전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 2016년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 '임파서블 버거'를 개발해 화제가 된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의 스타트업 임파서블푸드사는 CES 2020에 콩으로 만든 인공 돼지고기와 소시지를 처음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UN은 돼지고기가 전 세계 육류 섭취량의 36% 가량 이라고 평가했는데, 대체육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중요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골든블루 주류 제조 전문가 꿈꾸는 장학생 모집

골든블루는 '마스터블렌더 육성 프로젝트' 4회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마스터블렌더란 주류 제조 전문가로 원료를 직접 선택하는 것부터 발효, 증류, 숙성까지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 나아가 향과 맛을 블렌딩하고,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 오래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정도로 책임감이 막중한 전문가다. 국내 1등 정통 위스키인 '골든블루'를 비롯해 세계적인 위스키인 조니워커, 발렌타인 등 명성을 자랑하는 대다수의 위스키 제품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마스터블렌더의 손을 통해 탄생했다.

골든블루도 국내 최고의 주류 전문

가이자 마스터블렌더를 배출해 향후 대한민국 주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해리엇와트대학교 양조·증류학 석사과정을 이수할 장학생을 찾고 있다.

해리엇와트 대학교는 1821년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양조·증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훌륭한 주류 제조 전문가를 꿈꾸는 최종 선발된 장학생들은 해리엇와트대학교에서 국내에선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력과 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2020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로 IELTS Academic 6.5 이상의 성적이 필수 조건이다. /박민용 기자

스타벅스 2020년 럭키백 출시... 1.7만 세트

MD상품, 음료쿠폰 등 10가지 구성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오는 9월 2020년 경자년을 맞아 MD상품과 음료 쿠폰, 멀티백 등 10가지 구성품을 제공하는 럭키백 세트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럭키백은 총 1만7000세트를 준비했으며, 럭키백 전용 신상품으로 제작한 블랙 컬러의 소가죽으로 만든 카드 지갑을 포함해 지난 시즌 출시한 텀블

러, 머그, 워터보틀, 머들러, 코스터 등 다양한 상품으로 럭키백을 구성했다.

여기에 럭키백 구매 시 출력되는 영수증 음료 쿠폰 3매를 현장에서 즉시 제공하며, 1000개의 럭키백에 한해서는 음료 쿠폰 4매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 최대 7장의 무료 음료쿠폰을 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올해에는 PET 소재를 재활용한 실로 제작한 가방 형태의 친환경 멀티백에 담아서 제공한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이디야커피 인기 디저트 마카롱 3종

이디야커피가 디저트 제품 마카롱 3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마카롱은 프랑스식 디저트로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아름다운 색깔의 조화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디야커피의 마카롱 신제품은 쫄쫄한 꼬꼬(마카롱 겉부분) 사이에 다양한 맛의 크림을 넣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마카롱의 특성을 잘 살려 출시했다. /박민용 기자

